

# 영어 발화의 재구조와 후-어휘 음운현상의 지도

이 순 범  
군산제일고등학교

## Teaching English Restructuring and Post-lexical Phenomena

Sunbeom Lee  
Kunsan Jeil High School  
E-mail : LSB610@Yahoo.co.kr

### Abstract

English is one of the stress-timed languages and has much more dynamic rhythm, stress and the tendency toward the isochronism of stressed syllables. It goes with various English utterance restructuring, irrespective of the pauses by syntactic boundaries, and post-lexically phonological phenomena. Specifically in the real speech acts, the natural utterances of fluent speakers or the broadcasting speech cause much more various English restructuring and phonological phenomena. This has been an obstacle for students in speaking fluent English and understanding normal speech.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focus the most problematic factor in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difficulty on English restructuring and post-lexically phonological phenomena caused by stress-timed rhythm and, second,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teaching English rhythm bearing that in mind.

### I. 서론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중의 하나이며, 역동적인 리듬과 강세 그리고 강세 음절에 의한 등시간격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통사구조에 의한 끊어 읽기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발화의 재구조화와 후어휘 음운변화가 있게 된다. 특히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물론 유창한 화자나 방송언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영어의 재구조화와 음운변화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연스런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의 어려

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을 강박 리듬에 의한 영어의 재구조화와 후어휘 음운현상에 두고 영어 운율 지도 시 강박 중심의 영어 특성을 살려 지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자연스런 영어 리듬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같은 호흡군 내에서 각 단어와 음절의 첫소리는 다음 이어지는 낱말의 첫소리와 연결시켜 한 덩어리로 발음해야 한다. 음조 단위는 주요피치변화와 휴지에 의해 단위가 구별이 되며, 그 길이는 통사구조, 의미구조, 발화속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발화단위는 더 큰 발화단위로 재구조화 될 수 있고 억양 구에서는 발화의 속도, 길이, 태도, 대조 탁립, 통사적 구조에 의해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는 재구조화가 나타난다. 보통 속도의 발화에서 강박을 중심으로 접어가 강박에 전접하는 접어군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조나 리듬조절을 목적으로 접어자체가 후접하여 강박이 되기도 하는 등 실제 발화에서는 접어군도 재구조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영어의 재구조화를 후어휘 음운변화와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 Ⅲ. 영어 발화의 재구조와 후-어휘 음운현상의 지도

재구조화와 음운변화에는 영어 단어의 자연스러운 재분절과 음조단위와 운율층위에 의한 재구조화, 그에 따른 후어휘 음운변화다. 후-어휘음운론(Post-lexical Phonology)적 상황은, 탄설음화(wait a minute), 유/무성음화(Never fail to come with it. Please breathe fresh air.), 기식음화(Keep it in the box), 비음동화(Neck and neck), h-약화/탈락(an hotel), 구개음화(He speaks English.)등이다. 고등학교 고등영어(High

School English), 팝송 영어(Pops English), 스크린 영어(Screen English) 및 방송 영어(CNN English) 등 영어 학습자료를 통해 호흡군, 음조단위, 운율층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경계를 통합적으로 표시하고 Praat를 이용해 판독한 파형그래프를 제시한다. 아울러 강박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조화되며 재구조화에 따른 후어휘 음운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본다.

### 2.1 High School English

- (1) a. I think I'll spend about an hour each evening reading magazines.//
- b. I think / I'll spend / about an hour / each evening / reading magazines.//  
PH N T N T H N
- c. I think I'll / spend a-/-bout an hour / H N H NT  
each evening / reading magazines.//
- d. [[I think I'll]c]p / [[spend a-]c]p [[-bout an]c[hour]c]p / [[each]c [evening]c]p / [reading]c[magazines]c]p]I//
- e. I think I'll / spend a-/-bout an hour / [eɪŋk<sup>h</sup>ail] [spendə]  
each evening / reading magazines. (A: 15)



<그림 1> I think I'll spend an hour each evening reading magazines.

think와 spend, about의 -bout와 hour, each, evening의 ev-, reading의 rea-, magazines의 ma-에 각기 강박이 오고 이 강박을 중심으로 접어준 단위에서 등시성을 형성한다. 이 중에서 think와 spend와 hour에, evening의 ev-에, magazines의 ma-에 각각 핵음조가 놓여 다섯 개의 음조단위로 나뉘어지며 about의 bout와 each, reading은 강박이 주어지면서 각각 음조단위의 머리가 된다. I'll과 about의 a는 각각 앞의 강박에 전접되어 통사구조와는 다른 접어군을 형성하고, 특히 about의 a-는 한 단어가 다른 접어군을 형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통사적 구조에서 I'll은 spend로 후접되어야하나 강박중심으로 think에 전접되어 접어군, 음조단위의 재구조화를 뒷받침한다. think I'll의 I'll과 spend a의 a는 통사적으로 뒤 음조단위의 앞머리를 형성해야 하나 보통속도로 발화되면서 핵음조에 연습되어 [eɪŋk<sup>h</sup>ail]과 [spendə]로 발음되 후어휘 음운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Pops English

모든 언어는 언어 특유의 리듬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음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에서의 박자와 같이 영어에서도 강박과 약박의 어떤 규칙적인 반복이 있으며, 박자의 길이와 휴지(pause) 및 속도 등과 관련되어 강박 중심으로 접어군, 음운구가 재구조화 되고 그에 따른 후어휘 음운변화가 나타난다. 팝송 "Beautiful Sunday"에서 그러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2)

#### Beautiful Sunday



<그림 2> Beautiful Sunday -악보

- (3)a. • [[Sunday]c[morning]c]p / [[up with the]c[lark]c]p / [[think I'll]c[take a]c]p / [[walk in]c[the]c [park]c]p//  
[eɪŋk<sup>h</sup>ail]
- [[Birds are]c [singing]c]p / [[you by my]c[side]c]p / [[Let's]c]p / [[take a]c[car and]c]p / [[go for]c[ride]c]p//
- b. • [[I've got]c[someone]c]p / [[waiting for]c[me and]c]p / [[When I]c[see her]c]p / [[know that she'll]c[say]c]p  
[nouðəʃɪl]
- [[We'll drive]c[on and]c]p / [[follow the]c[sun]c]p / [[Making]c[Sunday]c]p / [[go on]c[and]c[on]c]p
- c. • [[Hey]c[hey]c]p / [[hey it's a]c[beautiful]c]p / [[day]c]p//

밑줄이 그어진 각각의 가사들은 통사적으로는 후접

되어야 하나 강박에 전접하여 실제 발화 상으로 접어군과 음조단위가 다르게 형성된다. 이것은 접어군, 음운구의 재구조화는 물론 음조단위의 재구조화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학생들이 가사를 듣는데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When I see her I know that she'll say'에서 밑줄 친 부분이다. 이것은 I가 통사적으로 후접되어야 하나 전접되어 약자리를 차지하고 that she'll이 강박 know와 함께 재구조화 되면서 연음되어 [nouðəʃɪl]로 후어휘 음운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that의 /t/는 she'll의 /ʃ/와 연음되어 [tʃ]로 발음된다.

### 2.3 Screen English

영화를 영어 학습자료로 활용해 영어를 익히는 게 좋은 영어 학습법인 이유는 새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영화만큼 거대하고 생동감 있으며 또한 재미있는 각본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들의 일상적인 자연스런 생활영어의 재구조화와 후어휘 음운변화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4)는 영화 "CHARADE"의 일부 대사를 호흡군 단위로 끊어 표시한 것이다. 밑줄 친 대사는 듣기에서 난해한 부분으로 재구조화와 후어휘 음운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자.

(4)REGI: I don't know. // Perhaps he met somebody.//

INSP: Obviously. // One ticket of passage to South America, / one letter stamped but unsealed, / addressed to you.//

REGI: May I see it , please?// "My Dear Regina:/ I hope / you are enjoying your holiday. // Megeve can be so lovely at this time of year. // The days pass very slowly / and I hope to see you soon.// As always, Charles.// P.S. Your dentist called yesterday. // Your appointment has been changed." // Not much, / is it?//

(5) PH N T N T  
 a. [[[I hope you are en-]c]p/[[-joying your]c [holiday]c]p]I  
 b. I hope you are en-/joying your holiday.  
 [houp<sup>h</sup>jəɾən]



<그림 3> I hope you are enjoying your holiday.

I hope you are en-/joying your holiday.에서 enjoying의 en-은 앞 음조단위의 꼬리가 되고 you are는 통사적으로 후접되어야 하나 en-과 함께 강박 hope에 전접되어 [houp<sup>h</sup>jəɾən]으로 발음된다. 이것은 Selkirk (1984)이 주장한 엄밀 층위 이론에 의해 접어군은 단어의 상위층위로 여러 단어가 하나의 접어군 단위로 묶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경계가 깨어져서 다른 접어군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4 CNN English

다음은 한국 이산 가족 상봉에 관한 CNN뉴스의 일부분을 호흡군 단위로 끊어 표시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재구조화와 후어휘 음운변화로 듣기가 난해한 부분이다.

(6) Family Reunion from North and South:

Divided families from South and North Korea / enjoyed precious moments with each other, / eating and talking about the lost years. // But even as the group in North Korea / toasted their happiness / at being able to see each other after more than 50 years, / their minds wandered to the imminent parting. // Since the two Koreas still maintain hostile relations, / these relatives have no guarantee / that they will see or even hear from each other / after they part Friday. // Even during the precious 4-day visit, / the reunited families had only a couple of hours a day / to spend alone with each other. // The tens of thousands of divided families / who are waiting to be reunited / are hoping / that these visits, / however limited, / will lead to many more. (CNN NEWS)

(7) PH N T PH N T  
 [[The tens of]c [thousands of]c]p [[divided]c [families who are]c]p /  
 [fáməlishuəɾ]  
 N T PH N T PH N T  
 [[waiting to be]c]p [[reunited]c]p/ [[are hoping

[wéirɪntubi]  
 H N T N T  
 that]c]p [[these]c]visits]c]p/[however]c]limited,]c]p  
 [háuevəlimitid]  
 PH N T N T  
 [[will lead to]c]p [[many]c]more.]c]p //



〈그림 4〉 The tens of thousands of divide families who are waiting to be reunited a hoping that these visits, however limited, w lead to many more.

첫 번째 음조단위에서 of, 두 번째 음조단위에서 who are, 세 번째 음조단위에서 to be, 여섯 번째 음조단위에서 to는 통사적으로 각각 후접되어야 하나 강박에 전접하여 통사구조와는 다른 접어군을 형성하여 발화된다. 음조단위 또한 실제 발화 상으로는 다르게 형성됨으로써 발화에서의 강박에 의한 접어군, 음운구의 재구조화는 물론 음조단위의 재 구조화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families who are에서 who, 와 are는 모두 강세를 받지 않고 강박인 families에 전접 되어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waiting to be에서 waiting은 -t-를 /t/음으로 발음하는 미국 영어의 대표적인 flap현상으로 유화 되어 약음인 to be와 함께 [wéirɪntubi]로 발음된다. however와 limited가 연음 될 때 강세 충돌이 일어나 [háuevəlimitid]로 발음 되 제1강세가 hów-로 이동한다. 엄밀층위가설(strict layer hypothesis)에 의해 삽입구로 쓰인 however limited 앞에 오는 these visits는 억양구를 이룬다.

### III. 결론

결국 학생들이 보통속도의 자연스러운 영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통사구조 및 리듬(rhythm)의 벽을 깨고 영어의 언어체계의 고유성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국어와는 다른 영어만이 갖는 강박 리듬을 타고 강약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얘기 중에 빨리 지나칠 부분은 빨리 천천히 얘기할 곳은 쉬듯이 얘기하며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강박과 강박사이의 등시성을 유지

하면서 빨리 지나치는 약세는 축약, 약화, 연음시켜 발음하도록 지도해야겠다. 아울러 이러한 발음과 리듬(rhythm)지도 방법으론 영어 챗트와 노래를 적극 활용해야겠다. 듣기 및 말하기의 기본이 되는 영어 리듬을 익힐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교사와 학생을 통한 정서적인 면과 발음지도상의 선호도 조사(김기섭, 2001)에서 챗트와 노래에 의한 음악적 활용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음지도 방법으로 동요와 팝송 활용은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면은 물론 동기 유발과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를 듣고 말할 경우에 강세의 흐름을 파악하여 음의 강약구조를 얼마나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듣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항상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듯 습관적·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한 학습활동의 안내자이자 촉진자역할을 하는 교사는 운율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설명력을 갖추어야겠다.

### 참고 문헌

- [1] 김기섭, *영어운율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6
- [2] 김기섭, *영어음운학응용*. 한국문화사, 1999
- [3] 김기섭, “영어의 재구조화와 영어발음지도에 있어서 음악의 활용”, *Foreign Language Education*, 8(1), 155~193, 2001
- [4] 김기섭, 임운. *음향분석과 영어 발음 교육*, 한국문화사, 2002
- [5] 박주현, *영어의 리듬과 운율이론*,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6] 임 운, “한국인 영어교사의 영어 발음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7] Avery, P., & Ehrlich, S.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8] Crystal, D. *Prosodic Systems and Intonation in English* Lond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9] Jensen, J. T, *English phonology*, Philadelphia: John Benson Publishing Company, 1993
- [10] Nespore, M. & Irene Vogel. *Prosodic Phonology*.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Holl and Riverton, U.S.A., 1986